

# '광주 3인방' 이승윤·안산·최민선, 양궁 태극마크 달았다

### 국가대표 남녀 8명씩 선발 다음달 두차례 순위 평가전 3위 안에 들면 도쿄행 티켓

이승윤(남구청)과 안산(광주여대), 최민선(광주시청)이 2021년 양궁 국가대표로 선발됐다. 이승윤은 지난 27일 광주국제양궁장에서 끝난 2021년 양궁 국가대표 3차 선발전에서 종합배점 22.5점을 기록, 7위로 대회를 마쳤다. 이승윤은 남녀 각 8명의 국가대표를 선발하는 이번 대회에서 태극마크를 달았다. 2016리우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이승윤은 남은 2차례 순위 평가전을 거쳐 상위 3위 안에 들면 도쿄 올림픽에서 2연패에 도전한다. 이승윤은 "광주와 인연을 맺고 남구청 소속으로 나선 첫 대회라 부담도 됐지만 (김병내 청장남과)

팀 동료들의 응원의 힘으로 이겨냈다"면서 "남은 평가전도 잘 치러 광주 남자양궁을 빛내고 싶다"고 말했다. 1회전부터 꾸준한 성적을 이어오며 태극마크를 지킨 안산은 "그동안 여러 차례 국가대표 선발전을 치러본 경험으로 편안하게 대회를 치렀다"며 "마지막 날 우천과 강풍으로 잠시 흔들리기도 했지만 그 또한 선수로서의 좋은 경험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목표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간 것 같아 기쁘다"고 덧붙였다. 2019년 국가대표를 지냈던 최민선은 태극마크를 탈환했다. 최민선은 "평소 훈련했던 마음으로 매 경기 최선을 다했다"며 "국가대표로 선발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각오로 최선을 다 잡아 남은 평가전에서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선발전 결과 남자부에서는 김우진(청주시청)이 종합 배점 41점으로 2위 진필중(30.5점

·한체대)을 큰 점수차로 따돌리며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박주영(서울시청), 한우탁(인천 계양구청), 김제덕(경북일고), 오진혁(현대제철), 이우석(코오롱)이 3~8위에 자리해 태극마크를 달았다. 여자부에서는 강재영(현대모비스), 유수정(현대백화점), 정다소미(현대백화점), 장민희(인천대), 임해진(대전시체육회), 오예진(울산스포츠과학고)이 올해 국가대표로 뽑혔다. 이들은 29일 부산으로 이동, 강서양궁장에서 올림픽 공식훈련에 돌입한다. 박재순 총감독은 "강서양궁장은 도쿄올림픽 경기 장소와 유사한 최적의 훈련장소"라면서 "바람 등 환경적 변화에 대한 선수들의 멘탈 강화와 체력 보완 등에 중점을 두고 훈련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쿄올림픽에 출전하는 남녀 각 3명은 내달 5~9일(부산), 19~23일(원주) 2차례 순위 평가전을 통해 선정된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양궁 국가대표로 선발된 이승윤(남구청·왼쪽부터)과 최민선(광주시청), 안산(광주여대).

## 광주 북구청 검도 춘계대회 선전 개인전 김민규·단체전 3위

광주 북구청 김민규가 제25회 춘계 전국 실업 검도대회에서 3위를 차지했다. 김민규는 지난 25일 충남 청양 국민체육관에서 열린 이 대회 개인전에서 연장까지 가는 접전 끝에 이영욱(달서구청)에 0-1로 석패했다. 김태호 감독이 이끌고 있는 북구청은 단체전에서 무안군청과 대표전까지 승부를 벌였으나 1-0으로 패해 3위에 머물렀다. 북구청은 단체전 예선에서 부산시 체육회를 3-1로 꺾는데 이어 8강전에서도 경기도 부천시청을 따돌리고 준결승전에 진출하는 저력을 발휘했다. 이번 대회에는 최철규 코치를 비롯해 조경철·조관현·김민규·김동민·김범수·최성준·김지호·이준형이 참가했다. 한편, 광주 대표 췌재운토건 여자 검도팀은 이번 대회 단체전에서 3위를 차지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제25회 춘계 전국 실업 검도대회 개인·단체전에서 3위에 오른 광주 북구청 검도팀.

## 광주대 "이번엔 U리그 우승 도전" 개막전서 전주대에 3-1 승리

전국 춘계대학축구연맹전에 이어 U리그 우승에 도전하는 광주대학교가 개막전을 3-1 승리로 장식했다. 이승원 감독이 이끄는 광주대는 지난 26일 보라매 3구장에서 열린 '2021 U리그 7권역(광주·전북)' 전주대와의 개막전에서 설현진(3년), 박규민(2년), 김태민(4년)의 연속골로 3-1 이겼다. 이날 경기는 제57회 춘계대학축구연맹전 '한산대첩기 우승팀' 광주대와 '통영기 준우승팀' 전주대의 맞대결로 눈길을 끌었다. 결과는 막강화력을 앞세운 광주대의 승리였다. 연맹전에서 9골을 합작했던 공격수 설현진과 박규민이 경기 초반부터 날카로운 움직임으로 상대를 괴롭혔다. 그리고 전반 44분 설현진이 원발슈팅으로 전주대 골대를 뚫으면서 U리그 첫 골을 신고했다. 광주대는 후반 5분 동점골을 허용했지만 '교체카드'를 활용해 분위기를 바꿨다. 후반 10분 투입된 김희수가 9분 뒤 상대 진영 오른쪽을 파고든 뒤 수비 뒷공간으로 패스해 박규민에게 기회를 만들어줬다. 박규민은 오른쪽발로 골망을 흔들면서 다시 리드를 가져왔다. 이어 후반 30분에는 연맹전 'MVP' 김태민이 기세를 이어 췌기골을 터뜨렸다. 기본 좋은 출발을 한 광주대는 내달 2일 보라매



광주대 설현진(9번)이 지난 26일 보라매 3구장에서 열린 전주대와의 경기에서 수비수를 제치고 슛을 하고 있다. <광주대 제공>

3구장에서 호남대와 두 번째 경기를 치른다. 지역별로 1권역에서 11권역까지 나뉘 10월 22일까지 레이스를 이어가고, 상위 32개팀이 11월 왕중왕전을 통해 최후의 승자를 가린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첫 시니어 무대 피겨 이해인 '톱10' 세계선수권 한국 선수 최연소 기록

2005년 4월 16일생인 이해인(세화여고)은 2021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스케이팅 세계선수권대회 여자 싱글에 출전한 37명의 선수 중 가장 어리다. 그는 이번 대회 전까지 ISU 시니어 무대를 밟아 본 적이 없다. 어린 나이의 이해인은 올림픽 쿼터가 걸린 중요한 무대이자 자신의 ISU 시니어 데뷔 무대에서 10위의 성적을 기록하며 올림픽 쿼터 2장 획득을 이끌었다. 이해인은 지난 27일 스웨덴 스톡홀름 에릭슨 글로벌에서 열린 2021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스케이팅 세계선수권대회 여자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우수한 연기를 펼치며 최종 총점 193.44점으로 '톱10'에 진입했다. 한국 선수가 세계선수권 톱10에 든 건 김연아(2007, 2008, 2009, 2010, 2011, 2013), 박소연(2014), 최다빈(2017)에 이어 4번째다. 아울러 한국 피겨 최연소 세계선수권 톱10 진입이라는 새로운 기록도 세웠다. 이해인은 주니어 데뷔 시즌인 2018년 국내대회인 주니어 그랑프리 파견 선발전에서 유영에 이어 2위를 차지하는 파란을 일으키며 등장했다. 그는 3개월 뒤 주니어그랑프리 데뷔전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며 한국 선수 최연소 주니어그랑프리 입상 기록도 갈아치웠다. 2019년엔 ISU 주니어그랑프리 2개 대회 연속 우승을 차지했는데, 이는 김연아 이후 두 번째 기록이었다. 이해인은 차별하게 한국 피겨의 역사를 새로 썼다. 세 바퀴 반을 뛰는 트리플 악셀 등 고난도 점프 기술을 장악하지 못했지만, 어린 나이답지 않게 흔들



이해인이 지난 27일 스웨덴 스톡홀름 에릭슨 글로벌에서 열린 2021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스케이팅 세계선수권대회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멋진 연기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리지 않는 '강심장'을 뽐내며 국제 대회를 휩쓸었다. 슬럼프도 있었다. 이해인은 지난달에 열린 세계선수권 파견선수 선발전에서 김예림, 윤아선(광동중)에 이어 3위에 그치기도 했다. 세계선수권대회 티켓은 1-2위에게 주지만, 윤아선이 나이 제한에 걸려 이해인이 '대타'로 세계선수권 무대에 설 수 있게 됐다. 이제 이해인은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권 획득을 위해 다시 뛰는다. 한국은 이해인과 김예림이 가져온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권 2장의 주인공을 국내 선발전을 통해 결정한다. 이해인도 다시 원점에서 국내 선발전을 치른다. /연합뉴스

### LOTTE CINEMA | 충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고질라 VS. 콩
2관	고질라 VS. 콩
3관	리아와 마지막 드래곤, 더 박스, 모리타니안
4관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
5관	미나리, 리스트
6관	고질라 VS. 콩
9관	트윈트 해커, 최면
7관 씨네커피	최면, 미션 파서블
8관 씨네커피	미나리, 스파이의 아내, 악인드 미운틴 타임, 톱과 제리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식

**국악 상설 공연**  
일시 : 2021. 02. 24.(수) ~ 03. 31.(수)  
매주 화-토 17:00  
장소 : 광주 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

**GAC기획공연 포커스 아카펠라 그룹 EXIT (One Voice)**  
일시 : 2021. 04. 11.(일) 15:00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3